

12월 심포지엄 II <문화의 미래, 어디서 찾을 것인가?>

“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”라는 외침과 함께 시작한 2000년.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, 그동안 문화의 정책과 현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,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 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. 매월 셋째 주 토요일,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콜로키움과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.

- 일시 : 12월 17일 (토) 오후 3시-6시
- 장소 :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(3층)
- 참가방법 : 당일 현장 선착순 입장 (120명)
- 문의 : 02-3277-3848 / 02-760-4711 (<http://artisthouse.arko.or.kr>)

심포지엄 II에서는 매달 개최된 콜로키움과 심포지엄 I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내일의 문화를 함께 이야기 해 본다. 특히 미래의 문화예술을 담당하게 될 인력 양성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, 문화산업인가 순수예술진흥인가의 문제, 그리고 이론과 현장이 함께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견해들을 제기하고 토론한다.

- ▶ 발제 1 : 임진택 (마당극 연출가)
- ▶ 발제 2 : 승효상 (이로재 건축사무소 대표)
- ▶ 발제 3 : 양현미 (상명대교수)
- ▶ 지정토론 : 홍찬식 (동아일보 논설위원), 김진아 (전남대 교수), 박은실 (추계예대 교수)
- ▶ 사회 : 박일호 (이화여대 교수)

